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0호 【루체 제25914호】주제107(2018)년 2월 9일(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조선인민군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축하연설

영웅한 조선인민군 장병들!  
조선인민군 창건 일흔돐 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동지들!  
천에 나는 평양시민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일흔돐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의 장엄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평양역광장에서 거행되었던 정규부대의 첫 열병식이 신생 조선의 장엄한 모습을 시위하였다면 오늘의 열병식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발전된 강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상을 과시하게 될것입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전투적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이 자리에서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크나큰 감격의 마음을 담아 주체적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명의 무장을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항일혁명선열들과 인민군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건군절을 맞는 전성로병들과 제대군인들, 전군의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경례를 보냅니다.

또한 소중히 안아주는 아들딸들을 방선초 소로 기꺼이 떠나보내고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 필요한 모토를 최우선 마땅하여 보내준 우리의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2월 8일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4월 25일과 함께 혁명무력건설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날입니다.

변변한 군대가 없어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강한 민족군대를 가지는것은 일일천주 바리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품어온 이 세기적인 숙망은 70년전 바로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강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건군위업을 추진하시어 3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주체혁명의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백결불굴의 혁명정신과 풍부한 투쟁경험, 명철한 전법을 이어받은 명실공히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혁명군대입니다.

주체적인 정규군이 탄생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자체의 든든한 무력적담보를 가진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당당히 등장하게 되었으며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제국주의침략군대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의 력사적부리가 내린 1932년 4월 25일이 있어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할수 있었으며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규무력이 탄생한 1948년 2월 8일이 있음으로 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도 이어 올수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력사적 전 로정은 일촉즉발의 위협을 배제한 세계최대의 화약고, 열점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긴장상태와 강도높은 대결전을 동반하였습니다.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사명에 충실한 우리 군대는 자위의 군사로선과 일당백의 기치높이 적들의 모험적인 도발행동을 결연하다 짓부시었으며 이 나날 그 어떤 강적도 탄배에 때려부실수 있는 불계의 전투대대로 성장강화되었습니다.

세계제국주의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억속도 지런도 없이 싸워야 했던 가장 준엄하고 어려운



시기에 인민군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혁명의 제일선에서 영웅적인 결사전을 벌이며 혁혁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반제군사건설과 부강조국건설의 최전방에서 사회주의와 혁명을 보위하는 기수, 역혁의 지지점이 되어온 최정예혁명강군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현전패승을 이룩하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게 되었습니다.

동서고급의 그 어느 갈피에도 빈틈없이 자백 건군의 대업을 실현하고 장기간에 걸치는 최악의 도전과 봉쇄속에서 최강의 무력을 키운 기적은 찾아볼수 없으며 이것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강철의 병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무궁장병의 거대한 업적입니다.

인민군장병들!  
70년전의 장엄했던 열병광장을 보무당당히 떠나온 조선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치렬한 격전장마다에 승리의 기발을 꽂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인 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전란의 참화를 막아내는 평화수호의 연설 기둥이며 사회주의최후승리를 향한 우리 인민의 대진군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최후대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분부하는 용감무쌍한 인민의 군대를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내날이 강대해지는 우리 군대의 전투적위업에서 새힘과 용기를 얻고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자기의 더운 피와 땀, 결사의 원신으로 인민의 진정어린 사랑과 신뢰를 쟁취하였으며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원호속에 인민과 일심일체를 이루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들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습니다.

이렇듯 위풍당당하고 위력막강한 혁명군대, 인민의 군대를 가진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이며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운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용감한 혁명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의 중임을 맡고있는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전체 인민을 대표하여 영웅적조선인민군장건 일흔돐을 맞이한 전군의 장병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하며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열병부대 전투원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  
당신들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가 크고 인민들의 사랑이 극진할수록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답게 성실한 부부와 원신적투쟁으로써 조국과 인민을 보위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상응한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무력으로 굳건히 담보해나가야 합니다.

현시기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이 밝힌 군력강화의 전략적로선과 과업들을 철저히 실천하여 혁명군대로서의 완결한 전투력을 갖추는것입니다.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품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당의 군대이며 인민군대의 강대성의 원천은 당의 혁명사상과 령도에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에 운명의 피를 잇고 당중앙위원회를 무장으로 옹위하는 제일결사대, 제일근위대가 되어야 합니다.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명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군공을 확립하며 모든 군사사업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필적하여 조직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쥐고 전군을 항일의 7번째, 전화의 근위부대와 같은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실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혁명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훈련이자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길이며 훈련에 대한 요구성을 최대로 높이는 여기에 강군육성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체전법,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훈련내용과 형식, 방법을 무한히 혁신하며 실전환경에 접근된 실용적훈련의 포성을 단 하루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주변에서 무산을 피우고있는 현정세하에서 인민군대는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싸움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

하여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도 침해하거나 희롱하려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에서는 자기 손에 들어온 무장장비들에 정통하고 전문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다그쳐 임의의 작전공간에서도 고도기술전을 치룰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모든 면에서 우수한 군대로 육성하는것을 중요한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날날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면모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병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인들이 제정된 규정과 교범을 잘 알고 그대로 생활하는것을 습벽화하여 부대, 구분대, 군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정규화적면모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전군의 모든 지휘관, 병사들은 인민군대가 인민을 떠나는 한시도 존재할수 없음을 항상 명심하고 인민을 무한히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사신도 해치는 혁명군대의 훌륭한 풍모를 계속 견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 큰일 작은 일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더없이 성실한 자세에서 전성을 바쳐나가는것을 혁명적군공으로 여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애국적인 구호, 혁명적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불가능을 모르는 투지와 창조분대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 전투장군마다에서 무비의 영웅투지를 발휘하며 우리 조국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게 일신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옹위하여온 조선인민군이 앞으로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끝성철벽으로 보위하며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억세 힘을 배배해나가기라는것을 굳게 믿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강대하고 융성번영할것입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

당신들의 앞에는 언제나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이 휘날리며 당신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새로운 투쟁과 승리로 향도할것입니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 나가십시오!